

공부란 무엇인가 사회로부터의 도피, 책에 취하기

지식과 정보의 '애정행각' 즐기려면 일단 다독 하시라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공 점유율 높아야 골도 더 잘 넣듯
다독해야 정신의 날 선 도끼 발견
정독 땀 비판적 독해할 수 있어야
내용 뒷받침하는 전제들 재구성을

책을 왜 읽는가? 어떤 이는 사회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책을 읽는다. 프랑스의 비평가 에밀 파게(Emile Faguet)는 말했다. "독서의 적(敵)은 인생 그 자체다. 삶은 질투와 경쟁으로 뒤흔들리고, 우리를 독서를 통한 자기 성찰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리하여 질투와 경쟁으로 뒤범벅이 된 사회, 그 모래 지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더 책은 독자에게 집중력과 몰입을 요구한다. 숨죽여 책에 집중해 있노라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독서가는 침평화를 얻는다. 미국의 작가 수잔 손탁(Susan Sontag)은 말했다. "독서는 제게 유희이고 휴식이고 위로고 내 작은 자살이요. 세상이 못 견디겠으면 책을 들고 쪼그려 누죠. 그건 내가 모든 걸 잊고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우주선이요." 이 작은 우주선에 중독된 나머지, 나가서 뛰어놀지 않고 책 읽기에만 매진하다 보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느니 자신에게 과몰입해 있는 사람이라느니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책을 읽는다고 꼭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서는 사회로부터 도망치는 데도 유용하지만,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데도 쓸모가 있다. 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을 떠나 책 내용으로 들어야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독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권고한 이들이 있다. 중국의 사상가 육상산(陸象山)이나 왕양명(王陽明)에 따르면, 책 읽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진짜 자신을 잃을 수 있다. 일본의 사상가 가이호 세이로(海保聖陵)는 '만옥담(萬玉談)'에서 "책 읽는 사람은 책에 취한 취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독서는 자기에 취하는 일이 아니라 책에 취하는 일이다.



내 모호함을 분명함으로 바꿔주세요, 침묵을 발화로 바꾸어 주세요, 라고.

둘째, 책 내용을 근거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가정과 전제들을 재구성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언명은 그 언명을 가능케 하는 전제가 있으며,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언명이 담고 있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전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독자는 은연중 저자와 자신이 같은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른 시대에 쓰인 책은 종종 다른 전제를 갖고 있는 법, 다른 문화권의 상식은 종종 자신의 상식과는 다른 법, 독특한 저자는 종종 독특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법.

'관심중자' 저자가 숨긴 내용 읽어내라

셋째, 비판적 독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주장만 접하면, 그 주장이 온통 타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십상이다. 비판적 독해를 위해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 경쟁하는 다른 주장들을 접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진리처럼 느껴졌던 주장도 기껏 '일리' 있는 주장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경쟁하는 주장들까지 정성을 들여 전면에 드러내어 놓는 책은 많지 않기에, 독자는 경쟁하는 다른 주장들을 스스로 재구성하며 읽어야 한다. 그래야 주장의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독과 정독을 통해 훌륭한 독서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생기리라는 법은 없다. 인생은 크고 작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법. 누군가 여전히 돈을 떼어먹을 것이며, 갑자기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것이며, 예고 없이 변기는 막힐 것이고, 출근길에 메뚜기 떼의 공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조선 후기에 책 꽤나 읽은 사람으로 알려진 유만주(兪滿柱)라는 독서인이 있었다. 그는 1784년 6월 12일 서울에 있는 이씨 성을 가진 의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책을 계속 읽으면서도 눈이 침침하지 않고 밝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네 가지 방법을 말해주었다. 그중 세 가지는 따뜻한 김을 눈에 췌기, 붉은 가루약 넣기, 육식 덜하기인데, 오늘날 보기에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책을 읽지 않겠다. 의사는 덧붙인다. "책을 즐겨보는 것은 눈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요." 엄청나게 무식하지만 아주 건강한 눈알을 가진 채로 늙어 죽고 싶은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 게 좋다. 독서는 안구 건강에 좋지 않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김영민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브린모어대학 교수를 지냈다. 영문저서로 'A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가 있으며, 에세이집으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사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보르헤스 "다시 읽기, 더 풍요로운 행복"
책은 사회와 자아의 중간에 있다. 사회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독서에 몰입할 수도 있고, 자아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책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준다. 책의 내용은 언어로 되어 있고, 언어는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며, 그 언어를 통해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한다. 사회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책을 읽다가 거꾸로 소통을 위한 언어가 풍부해지는 역설이 독서 행위에 있다.
언어가 풍부해지면,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더라도 작은 축제와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것저것 머리에 넣어두면, 그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부딪히고 발효되어, 다채로운 상상을 일으킨다. "설레다"와 "설레발"의 관계는 무얼까. 실사는 항문이 오열하는 것일까. 영어마음을 만들었던 것처럼 영어감옥을 만들면, 학부모들이 왔다투어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굳이 문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인생이 지루하지 않다. 이처럼 지식과 정보가 자기들끼리 애정

행각을 하게 하려면, 일단 다독을 해야 한다. 다량의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풍부한 상상을 누리는 것은 어렵다.
다독을 한다는 것이 책을 대충 읽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는 독자가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는 바다를 깨는 일이라고 했는데, 책을 대충 읽어서 얼음이 깨질 리가 있겠는가. 얼음을 가르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책이 과연 제대로 날이 선 도끼란 말인가? 그것을 알려면, 일단 어느 정도 다독을 할 수밖에 없다. 공 점유율이 높아야 골도 넣는 법. 책을 이것저것 오래 점유했고 있어야 정신의 날 선 도끼를 발견할 수 있다.
다독도 해야 하고 정독도 해야 한다면, 그걸 언제 다해요? 이 짧은 인생에 책만 읽다가 죽으란 말인가? 그럴 리가. 살면서는 책 읽기 말고도, 출근하

기, 설거지하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멧 때리기, 실없는 얘기 하기, 개소리 참고 들어주기, 가려운데 긁기 등 다른 할 일들이 많다. 그 와중에 책을 정독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빠른 속도로 다독을 하여 정독의 대상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읽는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보르헤스는 말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이요. 아, 책 읽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인데, 이미 읽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풍요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독할 부분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만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는 것이다. 그 질문에 답하는 문장들이 바로 정독할 부분들이다. 평소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질문에 답하는 문장을 찾아낼 감식안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그런 감식안을 갖춘 선생을 따라 다니면서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선생이 있으라고 만든 곳이 학교이다. 만약 자신의 학교에 그런 선생이 아무도 없다면, 그 학교를 떠나는 것이 좋다.
정독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첫째, 그 책의 저자가 침묵하는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저자들은 대개 '관심중자'이고, 불치의 관심중자일수록 아무에게나 자기 이야기를 펼쳐 놓지 않는다. 진짜 관심중자는 드러내기도는 숨긴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호하게 숨겨 놓거나 은근히 암시만 해둔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독자는 더 많은 관심을 책에 기울여야 한다. '나 잡아봐라' 놀이의 대가처럼, 저자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유혹하며 독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회구한다. 당신의 적극적인 해석 속에서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우리 뉘 폐 남구지석동 73-5번지 (표충사와 대운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식대장부 거래가능)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2-3454, 010-2106-0424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주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당옆길) 사주, 격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곱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유가네한우곰팡이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팡이 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 (뉴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남약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원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업가제공 ☎ 061)285-0444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선잡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 062)371-0583, 010-3947-0005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로,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업, 궁합, 택일, 도인양성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 062)236-2655, 010-3646-2977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1-1 (연산포구역전망)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 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 12(신안동 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 2차상가 2층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팡이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 061)287-3229, 010-3602-029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 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 ☎ 061)333-4514, 010-3620-726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